



담빛예술창고에서 열리는 '생태, 인류, 담양' 전 중 배성미 작가의 '흔들리는 초원'

봄날, 담양으로 문화 나들이

#담빛예술창고

환경 탐구 '생태, 인류, 담양' 전
배성미·김유석·김지수 등 참여

#해동문화예술촌

김성결·노여운·노형규·조정현 전시
'앙코르 해동' 23일 흥순관 무대



해동문화예술촌에서 만나는 '비록 그럴지라도' 전.

목련, 매화, 벚꽃, 개나리, 동백, 은갓 꽃들이 피어납니다. 수양버들은 막 푸른물이 들기 시작했고 나무에도 새순이 돋는다. 봄날, 꽃구경과 함께 문화 예술 나들이도 겸하면 금상첨화다. 그 중에서도 관람객, 즉누원 등이 자리한 담양의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곳이다. 오래된 주조장과 양광장고를 리모델링한 해동문화예술촌과 담빛예술창고는 '공간' 자체만으로도 매력적이다.

■ 담빛예술창고

전시장에 들어서면 작은 탄성이 나온다. 1층 전시장 전체가 너른 풀밭으로 꾸며져 있어서다. 좁게 난 사잇길을 걸으며 자세히 살펴보니 바닥에 깔린 건 만원짜리 지폐를 잘라 만든 가짜 풀이다. 풀밭 초입에는 400여 개 스테인리스 밥그릇이 가느다란 받침대 위에서 흔들리고 있다. 저 멀리 벽면에 흐르는 영상 속에는 진짜 풀이 흔들리고, 바람 소리도 들린다.

"자연을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배성미 작가의 작품 '흔들리는 초원'이다. 작가는 돈으로 만든 풀과 밥그릇은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을 표현한다고 말한다.

담빛예술창고에서 열리는 '생태, 인류, 담양' (5월 28일까지)전은 담양 밖에서 온 기획자(최재혁)와 작가들이 외부자의 시각으로 담양의 생태적 환경을 바라보고 탐구한 결과물을 소개하는 기획이다.

1관에서 만나는 허수영 작가의 '숲 시리즈는 새

씩 위에 잔디를 그위에 잡초를 또 그 위에 낙엽을 덧칠하고 덧칠하는 방식으로 중첩된 화면이 시간의 흔적을 담아내며 독특한 입체감을 선사한다. 부모님의 고향인 담양을 수차례 오가며 수집한 시각 자료를 작품으로 풀어냈다.

2관 전시작 김유석 작가의 '식물 로봇'은 담양의 풍경, 풀잎의 움직임, 바람 소리를 모티브로 구현된 가상 디지털 자연 풍경이다. 전시장 바닥의 갈대들은 조명의 양과 관람객의 움직임 등 환경의 변화에 따라 무작위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소쇄원'에서 영감을 받은 김지수 작가의 '공중 정원'과 '바이오 드로잉'은 소쇄원 오래된 나무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눈에 담고, 시냇물과 바위 사이에서 자란 이끼들의 향을 채집해 제작한 작품이다. 현실과 공상이 섞인 독특한 사진 작업을 진행하는 원성원 작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유형을 나무로 의인화한 '들리는 들을 수 없는' 시리즈와 '완벽한 정원'을 선보인다.

■ 해동문화예술촌

청년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만날 수 있는 '비록 그럴지라도' (5월 7일까지)전에는 김성결(여수), 노여운(담양), 노형규(대전), 조정현(부산) 등 네 명의 작가가 초대됐다.

시간의 흐름 속에 사라져 가는 풍경을 화면에 담아온 노여운은 도심과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골목길에 주목하며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취를 묘사하며 장소성에 주목한다. 파스텔톤의

화면이 인상적인 작품들이다.

노형규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소재는 '양'이다. '양'은 그의 작품 속에서 권력과 통치를 상징했던 조각상과 대변되는데, 그림 속 '양' 주변에 남아있는 구멍이나 절벽은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화려한 색채감이 돋보이는 김성결은 분노, 슬픔, 기쁨 등 자신의 감정에 집중했던 '자아'에서 한 발 나아가 자신의 일상과 다양한 활동 모습을 화폭에 풀어내며 '이야기'에 집중한 작품을 선보인다.

조정현은 박제 동물의 컬렉션을 모티브로 삼아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이야기한다.

해동문화예술촌 또 어린이를 위한 전시로 윤준호 작가의 '리틀 포레스트'전도 열리고 있다.

해동문화예술촌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는 '앙코르 해동' (매주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4시) 공연도 시작한다. 상반기에는 대중음악, 탕고, 연극, 창극 등을 선보인다.

25일 열리는 올 첫 무대는 '흥순관의 쌀 한 톨과 노래 한곡'이다. 가수이자 평화운동가인 흥순관은 정신대 할머니 관련 장기공연 '대지의 눈물'을 진행해왔다. 해금 연주자 홍다솔, 시인이자 화가인 임의진이 함께한다.

4월 29일에는 탕고 공연 '아르헨티나에서 온 편지'가 열리며 이후 연극 '기억해주세요-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5월 27일), 국악 창극 '비움, 총만' (6월 24일)이 열릴 예정이다. 매주 월요일 휴관. 오전 10시~오후 6시.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전시회가 열리는 박유자 작가의 작업실.

화가 박유자 작업실서 만나는 전시회

22일까지 '일상 소품 기념전'

작업실 전시회

화가의 작업실은 미술애호가들이 한 번쯤 방문해보고 싶은 공간이다. 작품이 탄생하는 장소가 갖는 특별함과 작가의 작업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식 갤러리에서 작품을 감상해도 좋지만, 작업실에서 만나는 그림은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서양화가 박유자 작가가 작업실로 미술 애호가들을 초대한다. 그림 감상과 함께 작가와 대화 등을 나누며 그의 일상을 공유하는 기회이다.

박 작가는 오는 22일까지 '박유자 예술공간-일

상 소품 기념전'을 우산중학교 후문 인근 작업실 (오치동 1022-3)에서 개최한다.

작업실에서는 그가 오랫동안 작업해온 해바라기 연작과 커다란 은행나무가 화면에 등장하는 '자연 속으로' 시리즈 등을 만날 수 있다. 해바라기의 꽃말은 일편단심, 사랑, 희망으로 작가 자신이 그림을 그리며 언제나 마음의 위로를 얻는 소재다.

조선대 미술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박 작가는 지금까지 20여회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다양한 그룹전과 아트페어에 작품을 출품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작업실을 방문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대한불교 조계종

사진미술 작품 공모전

대한불교 조계종은 '제3회 불교달력 사진미술 작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작품 공모전은 개인 또는 단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 부분은 달력으로 제작 가능한 사진 및 미술 작품이면 가능하다.

불교예술 콘텐츠를 발간하고 나아가 사찰의 아름다움 등을 담아내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 주제는 사찰풍경이나 동자승, 연꽃, 자연, 꽃살문, 연등, 수행 등 선택할 수 있으며 자유다.

대상 1명 400만원, 금상 1명 300만원, 은상 200만원, 동상 15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심사는 오는 4월 14일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개인 통보된다.

한편 이번 공모전은 (주)도반HC가 주관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dobanhc.co.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는 (주)도반HC 달력사업부(02-720-0671, 0677)로 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국악관현악과 어우러진 장사익 무대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23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소리꾼 장사익과 함께 하는 국악의 향연'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공연이 23일 오후 7시 30분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전통과 현재의 공존'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다채로운 국악관현악과 함께 피리, 타악, 가요 등과의 협연 무대를 선사한다. 지휘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최원복 부지휘자가 맡았다.

공연의 서막은 김성국이 작곡한 국악관현악을 위한 합주곡 '춤추는 바다'가 장식한다. 이어 국가무형문화재 72호 진도 씻김굿 이수자인 피리 명인 이종대의 협연으로 경기민요 '창부타령'을 모티브로 한 '창부타령 주제에 의한 피리 협주곡'을 들려준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소리꾼 장사익의 무대다. 그는 이날 무대에서 '질레꽃', '꽃구경', '꿈꾸는 세상' 등 히트곡을 들려준다. 한국적 색채가 담긴 그의 노래와 목소리는 국악관현악과 어우러져 더



피리 이종대



소리꾼 장사익

욱 깊은 울림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지는 무대는 작곡가 박범훈이 염불, 허탄타령 등 경기 무속 음악을 주제로 작곡한 국악관현악곡 '신내림'이다.

피날레는 흥겨운 타악 공연이다. 젊은 국악인으로 구성된 타악그룹 '우리로 바라지'의 사물놀이 어우러진 '타악 협주곡 무취타'를 들려준다.

티켓 가격 R석 2만 원, A석 1만 원.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와 티켓링크에서 예매가 가능.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제1회 연주회를 갖는 광주오르간소사이어티 회원들.

따사로운 봄날, 신비로운 오르간 음식

'광주오르간 소사이어티' 첫 정기연주회...21일 금호아트홀

지역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오르간 연주 무대가 마련됐다.

'광주오르간 소사이어티(GOS·대표 황양숙 호남신학대 교수)' 첫번째 정기연주회가 21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광주오르간소사이어티는 오르간을 전공한 후 현재 오르간리스트로 활동중인 연주자들이 올해 창단한 오르간 전문 연주단체로 지역 오르간 연주자 양성과 공연 활성화 등에 힘을 보태기 위해 결성했다. 광주는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된 곳이 임동성당 단 한 곳 뿐으로 정통 오르간 연주를 접하기 어렵다. 담양 담빛예술예술창고의 파이프 오르간 연주회가 그나마 일반인이 오르간 연주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이다.

회원들은 모두 호남신학대학교 교회음악학과 대학원에서 오르간을 전공했다. 김안나는 하이델베르크 교회음악대학을 졸업한 후 호남신학대 음악학과 객원교수로 활동중이며 송은영은 바젤 국립음대와 슈트라스부르크 국립음악원을 졸업했다. 현재 호남신학대 객원교수를 맡고 있으며 대나무

파이프 오르간을 갖추고 있는 담양 담빛예술창고 상임 오르간리스트로 활동중이다.

그밖에 '통일을 준비하는 광주실내악단' 단장을 맡으며 다양한 오르간 연주를 진행하는 양효선을 비롯해 김서진(광주 동명교회 오르간리스트), 이소영(목포 성산교회), 이혜민(광주서림교회) 등이 무대에 오른다.

연주회에서는 바로크 시대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작곡가의 음악을 선보인다.

디트리히 북스테후데의 '전주곡 사단조',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토카타와 푸가 라단조', 알렉산드로 길망의 '오르간 소나타 5번' 중 3악장 '스케르초', 레옹 보엘망의 '고딕모음곡' 중 '노트르담 대성당'과 '토카타', 장 랑글레의 '프리스코발 디를 기리며' 중 '페달 솔로를 위한 에펠로그'를 들려준다. 또 현대 최고의 오르간리스트로 꼽히는 제임스 크리스트퍼 파르디니가 편곡한 'Amazing Grace'의 토키타' 등도 들려준다. 전석 초대. 문의 010-4331-8558.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20일 '예술활동단체 및 동아리지원사업' 설명회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광주문화재단(대표 황봉년)은 올해도 문화단체 및 동아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명 '2023 생활문화예술활동단체 및 동아리지원사업'.

특히 지원사업 설명회가 오는 20일 오후 3시 광주문화재단 4층 다목적실에서 열린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설명을 비롯해 전

문가 특강,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진다. 김영현 옛장흥교도소 문화재생산업단장이 '동아리에 왜 지원을 해주지?'를 주제로 특강을 할 예정이다.

문화예술활동단체 및 동아리 지원 동아리는 오는 20일부터 27일(오후 6시)까지 이메일(gjcf4@daum.net) 접수를 하면 된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는 가능하다. 문의 062-670-7442. /박성천 기자 skypark@